

豐 嶺

제 97-100 호
2001

全州文化院



2001 지역 문화의 해

98 2001
여름호

전주문화원

기획특집 · 동물이 왕래하는 생태도시 전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오천명이었더라.

- 마가복음 6장 41~44절 -

편 / 집 / 후 / 기

- ... 「노령」을 찾는 독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노령」을 걱정해 주는 독자도 많다. 판형을 바꿔보지 않겠느냐는 독자도 있다. 그러나 어디나 들고 다니기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현재의 모습이 좋다고 하는 독자가 더 많아 당분간은 이 모습으로 밀고나가려고 한다. 우선 활자 급수를 키우기만 했다.
- ... 전북교육이 어지럽다는 말들이 많다. 또 교육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들 한다. 인재를 키우는 교육이 왜 이토록 흔들리는가 모를 일이다. 다 함께 교육을 걱정하고 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매는 데 힘써야 되겠다. 전북교육의 밝은 전망을 위해 반성하고 모색하자는 기획진단을 한다. 좋은 정책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 ... 모처럼 본지를 창간한 장명수 박사의 귀한 글을 선보인다. 동물이 왕래하는 생태도시 전주를 만들자는 제안이 돋보인다. 앞으로 계속 장명수 박사의 글을 신도록 하겠다.
- ... 벌써 여름이다.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청량 특집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신지훈〉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 윤리위원회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螢 蹟

발 행 / 全州文化院

비매품 · 2001년 여름호(제98호)

인쇄 / 2001년 5월 21일 · 발행 / 2001년 6월 1일

발행인 / 金光鎬

편집인 / 宋榮相

인쇄인 / 徐錠歡

사무팀장 / 신지훈, 편집디자인 / 박화영, 교열 / 성남선

240 노령 98호

문화관광부 등록 마-962호 · 등록일 / 1981년 8월 10일

561-812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35 한안과 빌딩 5층 ☎ (063) 288-7500 / 인쇄처 新亞出版社 ☎ (063) 275-4000

黨 嶺

[. 0 . n . t]

● 地域文化 · 地域人情 · 地域情報 ●

6 권두제언 | 김광호

8 기획특집 I | 동물이 왕래하는 생태도시 전주 장명수

20 백낙천 논단 | 전북 민심이 심상찮다 백낙천

기획특집 II | 전북교육, 생각해 봅시다

26 - 『教 Tech』를 통한 21세기 교육 오근량

35 - 오늘의 교육현실, 무엇이 문제인가 김경식

47 -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한상갑

55 - 바람직한 유아교육, 독립된 유아교육법 제정 유명숙

65 이호선 칼럼 ⑨1 | 턱 밑에 알 낳은 산새의 뜻 이호선

67 2001 지역문화의 해 | 지역 문화원의 역할 이수홍

긴급진단 - 전북발전

74 - 강한 전북을 위한 진취적인 반성과 모색 이상철

84 - 현행 지방자치 문제점과 개선 전망 유철종

전주산조페스티벌

94 그 작은 축제, 열린 축제가 만들어 가는 큰 반향 이동엽

자원봉사는 즐겁다

104 - 여성의 사회 봉사, 60만개의 행복 김순영

113 - 자원봉사의 활성화가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든다 허종현

題字 / 友山 宋河環 表紙畫 / 송재명

종교와 인생

123	- 사천년 늦은 과학	김현종
127	- 마음 공부를 통해 열린 사회의 주인이 되자	정상덕
137	생각해 봅시다 뇌물과 선물	이해길
141	전북교회사 재조명 은송리는 호남의 기독교 제1번지	김대전
148	참전수기 ① 항일에서 6·25 참전까지	한대석
156	유적답사 부끄러운 역사·자랑스러운 역사	주명준
164	삶의 체험현장 가짜가 진짜를 이기는 세상	라대곤
168	뿌리를 내린 엄마와 함께 글짓기	안 도

3대 기획 연재

172	전북지사열전 ⑦ 제7대 김규진 지사	양재숙
178	전북언론 30년 ⑦ 민속예술의 발굴에 앞장	문치상
192	전북 100년을 벗긴다 ⑦ 밀주(密酒)와 밀도살(密屠殺) 단속	송영상
208	이해를 돕는 시 감상법 ②① 감수성이 예민한 시인 이상렬	정희수
220	아빠의 일기 ③ 초등학교 시절의 원족	이충우
228	건강한 생활의 한방요법 ⑬ 비만증	정현국

권말부록 | 조상의 빛난 얼

231	백성과 나라를 먼저 생각한 학자 지포 김구선생 ⑨	김종명
240	편집후기	

밀주(密酒)와 밀도살(密屠殺) 단속

50년대 전북일보를 통해서 본 사회



송영상

전주문화원 부원장 · 본지 편집인

전고(全高)의 충혼비 건립 뒷이야기

1950년대의 국내 정세는 풍전등화의 위기였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38선 전역에 걸쳐 대규모 남침을 개시함으로써 6·25 한국전쟁이 발발되었다.

이에 앞서 2월 16일 일본 동경에 주둔한 맥아더 UN군 총사령관 초청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4월 들어서는 토지개혁을 실시하였으며, 이범석 국무총리가 사임하고 신성모 씨가 국무총리서리에 임명되었는가 하면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를 당하고 국회의원 선거 1개월 후에야 국회가 개원되어 국회의장에 신익희 씨가 선출된 1주일만에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정부는 대전으로, 대구로 이전되는 가운데 UN안보리에서는 국제 통합군인 UN군사령관에 맥아더 원수를 임명하고 인천상륙작전과 낙동강전선에서 총반격을 개시하는 북진작전으로 UN군은 서울을 수복하고 국군은 38선을 돌파하는 북상을 했다.

당시 국방부장관으로 최강국군을 호언하던 신성모 국무총리 후임에 장면 박사가 임명되었으나 장면 총리는 UN 수석대표로 미국에 건너가 활동하는 동안 국무총리 서리에 허정 외무부장관이 임명되었다.

이때 UN군은 평양과 청진을 점령하는 승전을 올렸으나 2개월 남짓에 평양을 철수하고 다시 서울도 철수하는 비운을 겪어야 했다.

1951년 1월 3일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의해 정부를 부산으로 이전하였으나 곧바로 서울을 재수복하고 38선을 재돌파하는 승전을 가져오면서 맥아더 원수는 해임되고 UN군 총사령관에 리지웨이 미8군사령관이 임명되었으며 미8군 사령관에는 벤틀리트 장군이 임명되었다.

국회는 김성수 씨를 부통령에 선출하고 개성에서 휴전 본회담이 개시되었는데 다시 회담 장소를 관문점으로 옮겼다.

이러한 시기의 1951년 당시의 전북에서는 특히, 전주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알아본다. 도내의 유일한 일간지 전북일보는 타블로이드 배판 2면 발행으로, 1면은 국내외 정세가 주먹만한 활자로 가득찬 편집인데 비하여 2면은 도내 소식이었다.

약력

학력 - 완산초등·전주북중·전주고등학교·경희대학교 졸업

경력

전주문화방송 TV, PD 심의위원, 전북문예진흥위원 역임 / 현 전북예총 고문, 전주시 공공명칭 제정위원,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전주시협의회 이사, 전주약령시제전위원회 부위원장, 월드컵전주 편집위원장, 21C 전주지식경영포럼 회원

저서 - 시집 『방향』, 향토지 『독립유공전북 265인록』, 『전주천변』, 『완산민풍』, 『전라도 풍물기』 외 다수

이 당시의 사회상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우선이었다. 전시하의 세태는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래도 교육만은 우선이었다. 6·25를 체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암울했던 1950년대를 이해시키기 위해 각급 학교의 조회 때마다 우렁찬 함성으로 외치던 우리의 맹세와 학생의 맹세를 회고한다.

우리의 맹세

1.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킨다.
2.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침략자를 쳐 부시자.
3. 우리는 백두산의 영봉에 태극기를 날리고 남북통일을 완수하자.

학생의 맹세

1. 우리는 일민(一民)이다 진리(眞理)에서 살자
2. 우리는 일민(一民)이다 자유(自由)롭게 배우자
3. 우리는 일민(一民)이다 공정(公正)하게 행(行)하자

이렇듯 6·25의 비극이 몰아치면서 도내 각급 학교가 언제 수업을 재개할지 예측할 수 없는 휴학에 들어갔다가 9·28 수복이 된 후 대부분 10월 들어 개학을 했다.

그러면 6·25 한국전쟁의 발발 전후의 당시 전북중학교 교내 현황을 알아본다. 8·15 광복 후 9월 1일을 학년초로 하던 학기제를 4월 1일로 환원하기 위해 1949학년도를 3개월 단축하였기 때문에 1950년도는 6월 1일에 시작되었다. 신학년도가 시작되어 한 달도 채 못된 6월 25일 새벽 모처럼의 일요일을 맞아 평화롭게 잠들고 있는 대한민국을 침공한 것이다.

전주북중학교는 6월 26일 월요일에 정상적으로 수업을 했으나 28일 오후 수업을 마치고 통학열차를 타려고 시간에 맞춰 전주역

(현 전주시청 자리)에 나간 기차통학생들은 사정에 의해 열차가 운행되지 못한다는 공고를 보고 무척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행여나 하고 몇 시간을 기다린 통학생들은 늦은 밤이 되자 흩어져 친척이나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었다.

다음날 등교하여 열차가 무기한 운휴한다는 철도 당국의 발표에 학교에서는 통학생들의 귀가를 허용했다. 그 당시에는 시외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폭염에 점심도 굶어가며 동산촌, 삼례, 이리(현 익산) 등을 걸어갔다.

그러면서도 학교에서는 전주관내의 학생만으로 정상 수업을 진행했다. 전황은 날마다 불리하여 수원, 평택, 천안이다 하더니 대전이 함락되었다. 전주에 공산군이 들어온 것은 7월 20일 목요일이었는데 그 5일 전인 7월 15일 토요일을 끝으로 7월 16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교에 들어갔다.

휴교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국충정에 불타는 도내 많은 학도들은 불과 수일간의 훈련을 받고 전선으로 달려갔는데 전북중학 학생들만 해도 몇 차례에 걸쳐 400여명이었다. 이들 모두가 실전 경험은 물론 총을 잡아보지도 않았는데도 전공은 혁혁했지만 희생 또한 컸던 것만은 사실이다.

우리 학도병을 비롯한 국군과 UN군이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아 3개월 만에 서울을 되찾고 평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10월 3일에는 뿔뿔이 흩어졌던 전북중학 학생들이 노송대를 찾아들어 10월 4일 휴학 80일만에 교문은 다시 활짝 열리었다. 10월 4일에야 적은 수의 학생으로 수업을 시작했다.

학교 교사는 처음에 육군 제11사단이 사단본부로 쓰기 위해 징발되었다가 제8사단이 본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구 전주상고의 교사를 빌려서 수업을 했다. 1951년 5월 19일 제8사단이 철수한 다음에야 재학생과 교직원들은 손때묻은 책상과 결상이 어지러운 교사

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학도의용병으로 최일선에서 산화한 일부 꽃봉오리 학생들과 교직원은 영영 돌아오지 않는 참담한 수업을 재개했다.

유청(柳靑) 교장은 금방 여기저기에서 뛰쳐달려올 것만 같은 전몰 학도병들과 순직 교직원의 위국단충(爲國丹忠)을 기리는 충혼비(忠魂碑)를 교내에 건립하기로 하고 4개월 남짓 심혈을 기울인 끝에 1951년 9월 28일, 9·28일 수복 1주년을 맞아 충혼비를 제막했다.

정면에는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의 친필로 충혼비(忠魂碑)라 새기고 후면 하단에는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해공(海公) 신익희(申翼熙) 선생의 친필, 측면 상단에는 당시 국사교사이면서 서예가인 한남(漢南) 전성욱(全性旭) 선생이 쓴 위국단충(爲國丹忠)과 충혼불멸(忠魂不滅), 전면 하단에는 당시 국어를 가르친 미당(未堂) 서정주(徐廷珠) 시인의 충혼시 그리고 후면에는 유청(柳靑)교장이 쓴 비문을 새겼다.

오늘날에도 노송대 전주북중학교와 전주고등학교의 영원한 상징으로 의연하게 남아 있는 충혼비는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국보급으로 남으리라고 본다.

서정주 시인의 충혼시와 유청 교장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충혼시 / 서정주 지음

빛이여 길이길이 여기 비춰라
백만년 맵게 닦은 나라의 냇을 지켜
사천이백팔십삼년 모진 붉은 난리에
천둥으로 울고 벼락으로 부서진
전북중학 총령들 여기 모여 쉬나니

비문 / 유 청 지음

4283년(1950년) 6월 25일 북한 괴뢰군(北韓傀儡軍)의 돌연한 남침은 자유와 평화의 나라 대한민국을 순시(瞬時)의 피로 물들이고 말았다. 장비와 수에 있어서 열세를 면치 못한 우리 국군은 부득이 일시적인 후퇴를 하였고 젊은 용사들은 쫓기가 요청되었던 그때 본교에서도 분연히 책과 붓 대신 총과 칼을 들고 일선에 나아가길 지원한 젊은 학도용사 4백여명을 배출하였으니 그들은 오직 조국의 통일과 자유를 위하여 안동, 포항 그리고 38선 근처에서 역전분투하여 천고에 빛날 무훈을 세웠건만 불행히 총탄에 쓰러진 한송이 한송이 꽃들이었으니 비보에 접할 때마다 단장지감을 금할 수 없었으며 괴뢰군의 남침은 호남의 평화경(平和境) 전주에까지 미쳐 이로부터 수많은 애국동지들이 체포, 구금, 학살을 당하였으니 이중에 본교 67인 동지 교사가 천추의 한을 머금고 적구에게 희생이 되고 말았다. 감격의 9·28 진격을 맞이하여 적당은 퇴산하고 고향산천은 의구하나 가신 님들의 모습은 다시 찾을 길이 없고 다만 청사의 빛날 애국열정은 모교의 북중을 조감하고 있을지니 남아 있는 우리들은 영구히 우러러 받들고저 삼가 이를 건립하노라. 차후에도 길이길이 국가와 모교를 위하여 순국순직한 학도들은 이 비에 추각하여 영구불멸의 기념을 삼고자 하노라.

장하다 전몰학도병들 고이 잠들다.

순직교사님들 명복을 비나이다.

건립자 전주고등학교장 · 전주북중학교장
유청(柳靑) 근찬

매주 수·일요일은 무주(無酒)·무육(無肉)일

70년대까지만 해도 전주우체국 네거리가 전주의 중심 지역으로 융성했다. 문화예술가들이 모여드는 장소가 연이어 있었고 행정관서가 머리를 맞대어 줄을 이었으며, 전주상권이 이뤄진 곳으로 은행도 대부분 자리잡았다.

상가에는 양품점, 양장점, 양복점, 금은방, 시계점, 도장포, 음식점, 극장, 다방, 심지어는 고급 요정과 주점 등 술집들이 다닥다닥 들어차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인파가 밀린 변화가였다.

전주의 멋쟁이 여성들이라면 소위 우체국 네거리를 반경으로 자리잡은 양품점이나 양장점을 쇼핑하는 습관이 있었다. 문화예술인들은 물론이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만남의 장소를 선택할 때도 이 부근의 다방이나 음식점을 찾았으며 실업자들도 구직을 위해서 기웃거린 거리였다.

이러한 전주우체국 네거리의 상권이 언제부터인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요즘 들어서는 좁은 일방 통행로의 상가 앞에 승용차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주차하고 있다. 그만큼 장사가 잘 안된다고 울상이다.

이렇듯 세태의 변화는 소용돌이친다. 소용돌이치는 세태의 변화는 오늘날과 어느 정도 달라졌는가를 알아본다.

1950년대의 사회는 어떠했는가. 당시의 지방일간지 전북일보의 요즘 신문과 같은 타블로이드 배판으로 2면 발행이었다. 1면은 국내외 정세, 2면은 도내 소식으로 가득찼다. 1면은 연일 UN 소식과 미국 정세, 국내 정치가 넘치도록 가득찼으며, 2면은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숨어들어간 공비 소탕 작전 낭보와 함께 혼란스러운 사회를 냉철하게 비판하면서 계도에 앞장섰다. 이 당시

의 신문기자를 가리켜 무관의 제왕이나, 사회의 목탁이라고 할 정도로 속된 표현을 빌자면 냉수 마시고서도 이를 쭈신다고 할 생활급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제때에 받지 못하면서도 사회의 목탁이라는 높은 긍지를 가진 시절의 기자였다.

특히, 전북일보 1951년 3월 10일자(토요일) 2면 톱기사가 눈길을 끈다.

“波行的 施策은 期待難, 無酒日을 制定하라. 每週 水·日兩日의 無肉日과 併行”이라는 큰 활자 제목만 보아도 그 시절이 얼마나 참담했는가를 알 수 있다.

전북일보사가 제창한 캠페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의 침략에 예리한 극동의 전위기지로서 빨간 호적떼와 피투성이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종결시키기 위하여서는 전 국민이 하나로 뭉쳐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하며 전력 증강에 귀일한 긴장된 질서를 더욱 견고히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반대로 날이 갈수록 지환된 공기가 농후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즉 시장의 쌀값은 또다시 소두 한말에 6천원대를 돌파하고 있는 요즈음에 있어서도 날로 느느니 흥등가요 늘수록 더욱 흥청거리는 건 “술집”뿐임은 맨 첫손에 꼽힐 일, 이의 증좌라고 하겠고 전시하에 한심하기 짝이 없이는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패기만만한 신흥국가의 국민으로 중공 오랑캐떼들과 같이 “알콜”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면 그 활동에 지장을 가져오는 노후부패한 국민이 아님은 물론이며 쾌락과 안일만을 주장하는 인위적으로 시정하지 못할 선천적 결함을 가진 국민성도 아니거늘 “술집”이 이처럼

융성하여가는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고야 말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견지에서 본지는 당국과 업자 그리고 일반에게 다음 몇 가지를 강력하게 제창한다.

현하 국가적 견지로나 또는 국민의 생활문제에 있어 가장 긴급히 요청되는 것은 쌀값의 대책일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첫째 식량의 절약 즉 낭비를 억제해야 할 것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늘어있는 음식점, 요정, 카페, 빠 등을 제한 내지 주류의 판매 억제를 꾀하는 것이 가장 첩경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매주 2회씩 주무일을 제정할 것을 강조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국에서는 이미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을 무육일로 정한 것은 다행한 일로써 이와 때를 같이하여 무주일도 수·일 양요일로 정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그러면 이에 대한 합리성을 대략 들어보기로 한다.

식량소비절약에 못지않게 농우의 확보가 긴급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하 시행하고 있는 무육일의 성과를 보건대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곧 우리 나라 요리법을 생각하지 않는 일방적인 방책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즉, “술”은 팔게 하면서 “고기”만은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술과 고기를 동시에 판매 제한하여야 할 것이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이것이 일약 국민의 자숙을 촉구하는 여러 각도로 보아 가장 절실한 것이다.

혹자는 반문하리라. 남한 각 지역이 아직 실시치 않고 있는 일을 왜 전북에서만 실시하는가를. 그러나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부당한 일은 물론 아닐 것이며 비록 타도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전주는 부산, 대구 등지보다 일반물가가 약 3할이 고등한 실정이 아닌가?

국민소득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는데 한편 적자재정을 보전하는 조세부과의 고율은 담세의 균형을 잃은 실정에 놓여 있어 조정된 세금이 징수되지 않음으로 세행정에 차질을 면치 못할 실정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세원(稅源)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세에서 탈하고 있는 밀주문제는 현하 세입 확보상 또는 양곡소비절약의 양면에서 새로운 검토가 요청된다고 한다. 즉 전주세무서 당국자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시내의 밀주는 날로 범람하여 매일 평균 주장술 약 10석에 대하여 밀주는 무려 90석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전월에 전주시 관내의 주세 5천5백만원(구화)을 밀주 소비량 90석에 과세한다면 약 5억5천만원으로 결국 세입면에 이만큼 결손을 초래한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은 계산에서 전주세무서 관내의 절기(4·4)분 총 국세배시액은 약 30억이라는 숫자를 표시하고 있어 밀주에서 탈세되는 월 5억원이 세입으로 계산되면 전 시민의 담세는 약 반감한다는 셈이 된다고 한다.

또한 하루에 밀주에 소비되는 양곡도 자그만치 4백여석으로 헤아리며 전도적으로 보아 약 2천여석이 추산되어 이에 대한 주세결합도 25억에 달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밀주만을 단속하면 세입과 양곡소비절약의 1조1석의 확실한 국가적 이점을 가져온다는 관점에서 당국에서는 밀주단속을 계속해 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양치 못하고 있음은 또한 세인의 냉소의 대상이 되고 있는바 관계당국의 좀더 창의성을 발휘하여 종전과 같은 미온적인 태도를 일척하고 발본적인 취체방식을 강구할 것이 시급히 요청되며 아울러 국민의 이에 협조하는 능동적인 행동이 또한 필요한 것이라 한다.

이러한 혼란에 편승하여 밀도살도 늘어났다. 소위 제삿날 아니면 명절 때나 쇠고기국을 먹는다는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우선 먹고보자, 또는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연상되는 밀도살 쇠고기가 은밀하게 음식점에 공급되거나 단골집에 잇대어 주는 양상으로 중산층의 호화생활은 남이 볼세라 장벽 안으로 숨어들었다. 이때의 1951년 4월 15일자 전북일보 2면 기사 원문을 옮긴다.

人力으로 農耕할 수밖에 없는 現實을 直視하라. 農牛一頭가 14萬町步擔當 屠殺禁止만이 打開의 길

직면한 농경기를 앞두고 본 도내 54만정보의 농경지 경운에 불가불 필요한 농우확보문제는 식량문제에 못지 않은 당면과제가 되고 있는데 요즈음 항간에서는 장래야 어찌되든 우선 먹자판으로 당국의 금령도 마이동풍인 듯 시장에서의 우육판매는 암암리에 여전 성행되고 있어 밀도살금지령은 헛되어 우육가격만 인상시키고 특권계급만이 우육을 독점케 하는 괴현상을 비껴내고 있으며 또한 소시장에서는 클고삐에든 송아지가 불티날듯이 우육상의 손에 팔려 넘어가는 현실을 자아내고 있어 도살금지도 결국 축우확보에는 뾰족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결국 농우를 확보하려면 국민 각자가 스스로 농우 사정을 똑바로 인식하고 축우를 보호육성하지 않으면 안될 현실에 놓여 있다.

본도 축우의 축감은 6·25사변으로 인하여 4만여두였던 것이 겨우 2만7천9백43두밖에 남지 않고 있다는 당국 통계상으로 역연한 사실이다. 이를 더좀 상세히 본다면 성우축농경에 감내할 수 있는 수는 1만6천7백65두에 불과하고 나머지 1만1천1백78두는 송아지인 것이

다. 이들 소의 분포상황을 본다면 산간부인 남원군이 최고위를 점하고 있으나 이 역시 불과 3천5백80두에 불과하며 같은 산간부군인 진안, 완주, 금산, 장수, 임실 군 등에는 2천두 내지 2천5백두씩의 소를 보유하고 있는 현상이며 특히 농경지 면적이 광대한 평야부인 옥구군은 겨우 성우 5백51두를, 부안군도 역시 6백14두의 성우를 겨우 보지하고 있어 도내에서도 가장 적은 실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타 평야부 군도 농경우 수는 격감되어 고창군은 9백35두, 김제군은 1천22두, 정읍군은 1천85두, 익산군은 1천2백23두의 성우를 간신히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써 금년도에 농우 1두가 담당하여야 할 경작면적은 평균 14정보에 달하고 있으며 옥구군 같은 데에 있어서는 무려 31정5반이란 광대하고도 지나친 면적에 달하고 있으며 정읍의 27정5반, 부안군의 27정6반, 김제군의 29정1반, 익산의 25정7반, 고창군의 22정5반 등은 이에 다음가고 있다는데 결국 이대로 간다면 금년 역시 논밭갈이에 쟁기를 사람이 물고가는 소위 『人力쟁기』의 괴풍경이 재판되고 말 형편에 놓여있다.

특히 공비의 조랑으로 예년에 평야부에 출감하였던 산간부 소의 노력 이동이 불가능하게 될 것을 예상할 때 평야부 농우확보에 대한 대책강구는 의미의 급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현실을 앞에 보면서도 소고기를 먹겠다고 당국의 금령까지 위반하여 가면서 어두운 골목을 찾아 밀도살육을 물색하고 다니는 점잔찰은 신사숙녀가 있다면... 또는 이들에 우육을 공급하려고 서대는 무지각한 자가 있다면 이것에 소고기로 부리를 꺾하고 밀도살을 감행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용인치 못할 이 나라의 역도칭호를 받

아도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이 아닌가... 축우 증산에 2백만 도민은 더욱 열과 성의를 가지고 계속적인 노력을 더할 것이 촉구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1951년 9월 11일자 전북일보 2면의 전북일보 서울특파원 정성관 기자발 『酒池肉林의 狂態에 悲觀, 피로써 國民에 警鐘, 退院한 젊은 愛國將校 自殺企圖』 기사가 눈길을 끈다. 기사 전문을 옮긴다.

작년 11월 일선에서 흉탄에 재기불능의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9개월만에 퇴원한 젊은 청년장교가 불구의 몸을 이끌고 또 다시 원대 복귀도중 주지육림의 방탕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부산의 모습을 통탄하고 저주한 나머지 전문 5백자의 유서와 전우에게 보내는 시(詩) 한 구절을 남기고 '칼모친'으로 자살을 기도하였으나 서울헌병대 임검헌병의 응급조치로 구출된 자살미수 사건이 지난 29일 시내 창신동 모여관에서 발생하여 해이된 후방국민에게 새로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즉 주인공은 당년 24세의 전북 이리(裡里) 출신인 추상렬(秋尙烈, 가명) 중위로서 그는 작년 11월 2일 중부 전선 춘천 북방모지에서 흉탄에 좌족(左足) 하퇴부 관통상과 우족(右足) 관절의 심한 타박상을 입고 수도 27. 5. 31 등의 각 육군병원에서 가료중 9개월만인 지난 8월 12일 퇴원하였다.

그 후 그는 상이군인으로서 제대권고가 있었으나 그는 다시 조국을 위하여 전야(戰野)에 백골을 묻기로 기약하고 자진 보충대에 대기중 대구, 부산, 특히 온천도시인 동래(東萊)는 그의 상상과는 달라 전쟁과는 거리가 먼 화려한 옷차림이요 요정은 가무(歌舞)에 취한 광경을 보